

▶ 또하나의 문화공간 - 임실 작은별영화관

낙후된 농촌의 문화충전소 역할 '톡톡'

“영화 한 편 볼려면 30~40분 거리에 있는 인접 도시로 나가야 했는데 ‘임실작은별영화관’이 생긴 후에는 동네에서 편안하게 최신 영화를 볼 수 있어 너무 편해요”

‘임실작은별영화관’이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도시의 문화충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실군민회관에 동지를 둔 후 4여년 만에 누적 관람객 약 13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지역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개관 94석의 좌석을 갖추고 2D와 3D 동시 상영이 가능한 뿐만 아니라 매점 및 휴게공간도 마련돼 있다. 특히 매달 16편의 최신 영화를 대도시 영화관과 동시 개봉하고 관람료도 5천원으로 저렴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해 관람료를 할인하고 애니메이션부터 액션, 공포, 스타터,

독립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상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마을을 소재로 주민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는 우리마을영화

군민회관에 동지 둔 후 지역민의 큰 사랑 받아 2D·3D 동시 상영 가능 매달 16편 개봉작들 대도시 영화관과 동시 개봉 관람료도 5000원으로 저렴

제를 공동 주관하고 상영 장소를 제공하는 등 단순한 ‘영화관’에서 ‘문화향유 장소’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인구 3만명 남짓의 작은 농촌도시에서 약 12만9천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임실작은별영화관’은 문화의 질을 높이고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문화충전소로 자리 매김했다. 군 관계자는 “작지만 모든 것이 있는 영화관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며 “도시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 인프라 마련과 알찬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공연 & 전시 ◀◀

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김원 결과전 오늘부터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신선한 감각으로 담아내면서 전통회화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김원 작가.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 창작스튜디오에서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김원 결과전’이 열린다. 김원 미술가는 2017년 2월부터 창작스튜디오 입주 미술가로 입주해있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면면들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망하며, 이를 경쾌하고 활발한 드로잉으로 표현한다. 애경사에 착안한 이번 작품에서는 형식적으로 고착화된 화면의 모습이나 흰색 봉투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꺼내놓았다. 김 작가는 “이번 작품은 슬픔과 기쁨의 표현마저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져 버린 사회 한편의 풍경을 회화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새하얀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어 세어보고,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되어 등이 굽는 모습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통해 지금 시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정해은 기자



27일 전북 여성의 가치 창출 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도내 여성의 가치 창출·동반성장 꾀한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연구원 사회지원단 등과 협약 체결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신수미 센터장)는 27일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신수미 센터장과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강현직 원장,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합미화 센터장 등 세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도내 출산장려 정책 실현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협력,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체계 구축 등 도민의 보편적 복지 구현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긴급전

화 1366 전북센터는 협약을 통해 폭력예방·인권보호 교육 협력 발굴,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양성평등 관련 분야 강사풀 공유 등 도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각 기관은 협업을 통해 폭력 업무관계자 역량강화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신수미 센터장은 “전북여성의 가치창출과 동반성장은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교류로 실질적 남녀평등 실현, 모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미술협 전북지회,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건립 반대 성명

(사)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회장 강신동)와 남원시 미술인들은 27일 남원시가 추진 중인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건립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공공재인 시립미술관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밝혔다.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이는 자칫 개인미술관 처럼 운영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현직교수이자 증경작가로 활동 중인 김병종 작가는 미술관에 그의 이름을

걸 만큼, 작가로서의 검증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건립은 개인을 위한 특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건립이 계속 추진된다면, 이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개인의 기념관을 지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사)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립미술관이 지역 작가들의 발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남원시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 아닌 ‘남원시립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공연기획·무대조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과 전북도는 2017 청년문화 예술대학, 공연예술 실무과정으로 공연기획 및 무대조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공연기획 아카데미’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 공연기획 이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홍보마케팅 심화과정으로 공연기획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무대조명 아카데미’는 10월 2~30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6시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2시 매주 2차례에 걸쳐 무대조

명 기기의 이해 및 무대조명 운용, 무대디자인 등 실기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모집기간은 28일부터 8월 10일까지며, 공연기획과 무대조명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예술인(만 38세 이하)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수강생은 각 분야별 2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 및 전화(063-230-7464)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K-컬처 SHOW 시즌 2

‘별의 전설’ 내일 남원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시 문화가 있는 날 7월 행사에 20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과 연계한 우수공연 K-Culture SHOW 시즌 2 ‘별의 전설’ 공연이 오는 7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남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남원시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20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단이 추진하며 스트리트댄스와 첨단미디어아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 SHOW로 비보잉, 팝댄스, 단체군무 등 다양한 장르의 40여명의 댄서들이 출연해 최첨단 영상기술과 춤이 결합된 판타스틱한 무대를 연출한다. ‘견우와 직녀’라는 한국의 전통 설화의 고전적인 문법에서 탈피해 현대와 과거, 현실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오가며 극을 구성하여 1부는 스트리트 댄스를 중심으로 한 춤의 향연으로 꾸며진다. 2부에서는 미디어 아트와 움직임, 3부에서는 루프 액션으로 견우와 직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20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며 국공립 및 민간단체 등의 우수공연 선정 수 준 높은 문화예술의 나눔을 통해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해 목적을 두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대표 이영근